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살펴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관한 사례 연구*

권계순** · 박영애***

요약

본 연구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그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이들의 관계 및 반응 방식이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상담 기관에 내원한 아동들 중 K-CBCL 외현화 또는 내현화 항목의 T점수가 63점 이상인 아동과 그 어머니 8쌍이었다. 연구방법은 녹화된 상호작용 관찰 장면의 축어록을 PCITCS에 따라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질문', '타인을 향한 부정적 개인적 견해', '제한', '자기와의 상호교류'와 같은 반응 빈도가 높았고, 아동은 '설명', '긍정대답', '회피', '타인의 참여 요구', '양육제공', '코드화 할 수 없는 반응'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설명', '긍정대답', '양육의 제공', '코드화 할 수 없음'반응이 많았고, 이들 어머니는 '자기와의 상호교류'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회피', '타인의 참여요구', '공상의 비약'반응이 높았고, 어머니는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 '사교적 담화', '코드화 할 수 없음' 반응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 특성은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외부 요인과 상호 교환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상호작용이 양자 간 특성을 인식하고 조율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상호작용 내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갈등을 살펴보는 것이 아동 행동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문제

논문제출일 : 2010. 4. 30

논문수정일 : 2016. 5. 29

게재확정일 : 2016. 6. 5

* 본 논문은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대전 휴 클리닉 놀이치료사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ye-Soon Kwon, Hue Clinic, 52, Dunsan-ro, Seo-gu, Daejeon, 35234, Korea,
E-mail: moongarden1@hanmail.net

I. 서론

현대사회는 불안정한 사회 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심리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2006년 상반기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도 25.8%의 아동이 정서 또는 행동에서 정신질환 고위험 군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뉜다. 유전적 요인은 생물학적 요소들로 유전, 신체상태, 지능, 기질, 뇌손상 등을 포함하고, 환경적 요인은 경험적 요소들로 육아경험, 경제·사회적 여건,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 및 또래 관계, 학교경험 등을 포함하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아동의 적응 및 정서문제에 보다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홍강의, 2008).

Kohut & Colleagues(1984)는 부모가 공감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질 때 감정이 메마른 아동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아동이 환경과의 조율을 위해 내보내는 수많은 신호를 부모가 알아차리고 도와주지 않거나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스스로 아동의 신호를 차단하게 되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모는 점점 아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임하거나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Rosenstien(1995)은 부모의 낮은 공감능력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연관되어지며 부모-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에 무관심해 지는 것을 밝혀냈다. 반면 조율된 부모는 관계에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적응적 행동을 보다 많이 만들어냈다(Holigroki, Kaminski & Frieswyk,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외현화와 내현화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모의 태도 중 거부, 통제적 태도가 외현화 문제와 가장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e.g., Campbell, 1973, Anderson et, 1994; Winsler, 1998, 정진희, 2007; 정문자 & 김문정, 2004; 정인선, 2006; 이승희 2003). 이와 더불어 허용, 방임적 태도도 아동의 외현화 문제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돌봄이 부족하거나 방임적인 태도는 모든 행동문제에 부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 중 하나인 ADHD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ADHD와 행동장애를 모두 겪는 아동의 부모는 ADHD만을 겪는 아동의 부모 보다 심리적, 언어적인 온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aminski, Harshaw & Jones, 2004). 이들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ADHD아동에게 단순한 행동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온정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Belsky와 동료들(1996)은 양육태도와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와 아동의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행동문제를 살펴보았는데, 15개월에서 21개월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문제가 아예 없거나 1차례의 문제만 있었던 아동 보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동의 외현화 행동 특성이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더 지시적이고 제안하도록 유도함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박금남(2000)은 비행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의사소통 패턴이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고, 비행을 부모와 거리감 있는 의사소통으로 일탈의 가능성 및 초기 비행이 부모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보았다. 유희정(1999)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역기능적 반응을 일으키며,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면 자녀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 영향을 지지하였다.

이와 반대로 내면화문제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적 증상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문제를 지칭한다. 서수연(2007)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이고 과잉기대와 간섭을 할 경우 수치심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수치심 경향성이 내면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 거부, 제제적인 양육태도가 높으며 돌봄이 적을 때에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창현, 2006; 문세민, 2005). 아동의 불안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로는 부모의 방임과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 부정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과잉기대 등이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송영희, 2006; 이정옥, 2004). 또한 부모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표상이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표현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었다(이혜란, 1999). 이밖에도 김경민(2005)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이 있었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든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기저로서, 상호작용이 개방적이고 감정 이입적일 때 아동이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공통적인 이해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여 행동문제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아동의 내현화·외현화 행동문제 모두에 부모의 재촉과 잔소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McClowry, Giangrande, Tommasini, Clinton, Foreman, Lynch & Ferketich, 1994) 어머니의 애정적인 태도가 높은 아동들은 정서불안, 신체증상, 위축, 주의

집중,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이 낮은 반면, 통제성이 높은 어머니의 아동들은 정서불안, 신체증상, 주의집중,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허태희, 2008),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에 참여한 어머니가 우울수준이 감소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아동의 행동문제가 감소되었다는 것(두정일, 2010), 어머니의 민감성, 온정성, 비지시적 반응성이 향상되면서 아동의 수용성과 능동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서귀남 & 전종국, 2003)등도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아동행동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표상보다는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더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실험도구의 설계도 아동기의 한 가지 형태의 장애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있거나, 몇몇 도구들은 부모, 아동 요인 중 한쪽에 대한 데이터만을 모으며 다른 한쪽 요인을 간과하였다. 또한 Crittenden(1982) 등의 연구에서 보여지 듯, 36개월 이하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계에 표상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Holigrocki, P. Kaminski & S. Frieswyk, 1999).

국내의 선행연구들도 양육자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존한 측정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와 관찰평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이미애,1995; 류현강,2007; 강지현,2009). 특히 장은경과 오경자(2004)는 자녀의 정신 병리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과거 행동을 회상하여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세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왜곡의 여지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상호작용 관찰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관찰 평가를 실시하였던 상호작용 연구는 매우 적고 그나마 대부분 영아 및 일반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최영희,1991; 최은아,2005; 박미정,2006; 노민지,2008; 손미애,2009), 국내에서 유일하게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장은경과 오경자(2004)의 유사연구에서는 관찰평가 시간이 짧아 상호작용의 빈도를 표집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남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행동문제 아동과 그들의 부모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상호역동적인 관점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 별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1)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아동 상호작용 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 2)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대전의 H소아정신과와 경기도의 I아동상담센터에 내원하였던 만5세-만8세 아동과 부모 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별을 위해 1차적으로 아동의 접수면접과 Full Battery 심리검사여부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능검사(K-WISC III)결과 전체 지능이 90(평균 하)이상이 되는 아동을 선별하였다. 또한 행동 평가 결과는 K-CBCL의 내현화나 외현화 점수가 T63점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반 상승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는 외현화 및 내현화 아동과 어머니 각 4쌍으로 총 8쌍이었다. 연구 참여 아동의 전반적 특성과, K-CBCL의 외현화·내현화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아동의 전반적 특성

유형	분류	No.	성별	연령	지능지수	주요 문제
외현화 아동 (N=4)		01	M	6	98	고집, 분노조절 미숙
		02	M	6	91	고집, 충동적, 산만함
		03	F	7	99	산만함, 감정기복, 관계미숙
		04	M	7	100	공격적, 산만함
내현화 아동 (N=4)		05	M	7	100	소통 어려움
		06	F	5	103	심리.정서적 불안정
		07	M	7	89	의욕없음, 자기비하
		08	M	7	99	자기비하, 아기 같고 배려 부족

<표 2> K-CBCL 특성

유형	분류	No.	위축	신체화	우울/불안	내현화	비행	공격성	외현화
외현화 (N=4)		01	61	51	54	56(정상)	64	70	69(임상)
		02	50	56	54	54(정상)	56	69	66(임상)
		03	58	42	60	57(정상)	64	64	65(임상)
		04	63	42	68	62(준임상)	69	79	77(임상)
내현화 (N=4)		05	63	56	70	67(임상)	50	53	51(정상)
		06	99	72	72	75(임상)	59	58	59(정상)
		07	72	51	64	63(임상)	56	59	59(정상)
		08	61	58	66	65(임상)	50	46	47(정상)

2. 측정 도구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측정을 위해서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대학교 심리학과 Dr. Holigrocki와 노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Dr. Kaminski가 Menninger Clinic의 심리학자들과 공동 개발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Parent-child interaction assessment : PCIA-II)*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관계의 부적응적인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병리적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들을 진단하여 이에 따른 중재 제안이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들은 양자관계에서 부모-자녀 각 구성원의 행동과 표상, 역할기능을 관찰하고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PCIA-II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Richard J. Holigrocki, Patricia L. Kaminski & Siebolt H. Frieswyk, 1999).

이 도구는 4-10세의 아동과 그 부모가 함께 동물원 나들이를 간다는 가정 하에 동물원에서 있음직한 15가지 장면을 기초로 측정되는 반 구조화된 상호작용상황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풍부한 질적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관찰 장면 구성을 위해서는 <표 3>과 같은 도구들이 사용된다.

<표 3> 도구 설명

품목	설명
동물원 보드1	장난감 위치가 표시된 보드1개
북클립1	용수철제본 17개의 표시카드 1개
사람6	바닥에 추가 달린 다문화적 남,녀 각3
동물10	얼룩말, 고릴라, 하마, 호랑이, 기린 각 한쌍 개별문의
나무3	바닥에 접착천이 붙은 나무 3개
나무토막10	나무로 이루어진 맞물리는 나무토막 (長:1, 中:4, 短:5)
동물우리3	4개의 통나무가 접착되어 맞물린 우리
블록10	맞물리는 블록 (大:6, 小:4)
터널1	7개의 큰 블록으로 만든 터널
출발점1	1개의 큰 블록
시소1	짧은 나무 받침이 있는 시소
빈 장난감 상자와 뚜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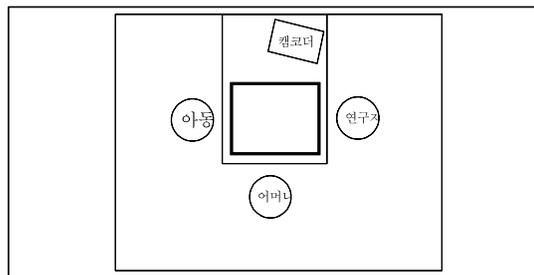
* https://en.wikipedia.org/wiki/Parent-Child_Interaction_Assessment-II

3.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자는 상담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아동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어떻게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PCIA-II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고, 연구팀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서 관찰된 현상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관성이나, 다양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 간의 과정에 대한 측정, 그리고 조율 및 상호작용 특성과 같은 상호 역동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연구 책임자인 Dr. Holigrocki와의 E-mail 교신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 및 사용 절차와 방법, 분석을 위한 조언 과 지침, DVD Training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PCIA-II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자료의 번역은 아동학 전공 교수1인의 감수 하에 본 연구자가 시행하였고, 평가는 대전의 H소아정신과에서 5쌍, 경기도 I상담센터에서 3쌍의 관찰이 진행되었다. 관찰 장소는 달랐지만, 두 관찰실의 환경 구성 및 배치방법은 평가의 지침서에 따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다음에 제시된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찰 환경 구성 및 배치 방법

평가는 <표 4>와 같이, 아동과 어머니가 동물원에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의 총 1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한 장면 당 90초씩 제시된다.

<표 4> PCIA-II 평가 구성

평가구분	평가구성	소요시간
과제 소개	참가자 맞이하기, 소개하기, 동의서 양식 작성하기	약 5min.
도입	자유놀이	90 sec.
협동 구조화 놀이	① 도착	(각 90 sec.) 약 25min.
	② 달리기 경주	
	③ 무서운 터널	
	④ 기린에게 먹이주기	
	⑤ 다친 팔	
	⑥ 점심 먹기	
	⑦ 기다리기	
	⑧ 높은 바위	
	⑨ 길 잃은 아이	
	⑩ 낯선 사람	
	⑪ 시소타기	
	⑫ 동물 이름 말하기	
	⑬ 기념품 가게	
	⑭ 동물원 떠나기	
	⑮ 잃어버린 장난감	
종결	정리 및 마무리	90 sec.

과제소개가 끝나면 연구자는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오늘 우리는 엄마와 ___이가 주인공이 되는 동물원 여행 영화를 한편 만들 거예요. 준비가 거의 되었는데요, 몇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편안하게 놀이 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자유놀이 시간을 제공 한 후 다시 돌아옴)- 네 좋습니다. 준비 되었나요? 자, 그럼시작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장면에 따라 보드 위를 세팅하고 아동과 어머니가 동물원에 도착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놀이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협동 구조화 놀이를 시작한다. 이후 주어진 90초의 시간

이 지나면 상호작용을 멈추도록 하고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1쌍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데에는 30~4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4. 분석 방법

PCIA-II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코딩 시스템은 평가 대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 및 상호작용의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패턴과 양자관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전체를 부호화 할 수 있는 PCITCS(Parent-Child Interaction Transcript Coding System)를 이용하였다. 위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방식을 명명하는 총 39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응 유형에 따라 의사전달방식, 감정 및 견해의 표현방식, 목적과 의도 전달 방식, 기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내용은 <표 5>와 같다.

시나리오를 전사할 때는 목적이 없는 말, 어중간한 말, 또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 등 모든 것을 기록하며 만약 이것이 "예" 또는 "아니오"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예] 또는 [아니오]를 선행된 어구의 뒤에 기록한다. 또한 "예", "아니오", "모르겠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이탤릭체로 기록하고 네모괄호에 의미를 기술하였다.

전사가 완료된 후에는 아동과 어머니가 나눈 상호작용의 모든 문장에 번호를 매기고 번호가 매겨진 문장을 단위로 중복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80번째 말로 "P:80저 나뭇잎 좀 가져다줄래?" 라고 말했다면 <P, ASK, IN>이라고 코딩한다. 즉, 어머니가 질문이라는 방식을 통해 주도하는 말을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아동학을 전공한 아동 상담자 1인과의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통한 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임상심리사 1인과 한번 더 일치 정도를 확인하여, 2개 이하의 코딩 값에 대해 불일치된 견해를 보였던 8%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과 토의를 거쳐 합의하였다.

<표 5> PCITCS(Parent-Child Interaction Transcript Coding System) 하위유형

분류	하위 유형	내용설명
의사 전달 방식	질문(ASK)	자기 또는 타인에게 질문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령(COM)	말이나 태도가 의무적인 경우를 반드시 수반한 명령을 하며, 여기에는 명령이 누구에게 향하는지에 대한 불명확함이 없어야 한다.
	제안(SUG)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조심스러운 질문 또는 요청을 의미한다.
	설명(EXP)	설명, 기술,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상대의 말 되풀이 하기 (REP-O)	시나리오에서 상대가 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고 다시 말하거나, 바꿔 말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코드화 하지 않는다.
	자기 말 되풀이 하기 (REP-S)	시나리오에서 자신이 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고 다시 말하거나, 바꿔 말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코드화 하지 않는다.
	가르치기(TCH)	가르침 또는 훈계의 성질을 포함한 설명을 제공한다. 만약 TCH점수를 얻었다면, EXP점수는 주지 않는다.
	스스로대답하기 (ANS-[S])	말하는 사람이 질문이나 제안/견해를 제시하지만, 스스로 대답한다.
	주도하기(IN)	주도하는 행동 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소개한다.
	보상(REW)	부모가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상 또는 보상적 약속을 제공한다.
처벌(PUN)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처벌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다.	
지시한대로 말하기 (DICT)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정확히 어떻게 말하라고 하거나, 상대가 말할 것을 어떻게 말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긍정적정서(POS)	긍정적인 감정 및 상황을 표현한다.
	부정적정서(NEG)	부정적인 감정 및 상황 표현을 말한다.
	긍정적인 개인적 견해 (자기/타인/장난감) (PC+[S/O/T])	타인의 일정 행동이나 습성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용기를 주고 긍정해주는 긍정적인 개인적 견해들이다. [자기= 실제 본인이나 자기에 해당하는 피규어. 타인= 실제 사람이나 타인에 해당하는 피규어. 장난감= 동물원 구성요소 또는 테이블]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 (자기/타인/장난감) (PC-[S/O/T])	상대의 나쁜 점에 대한 명백한 비방, 타인을 닮하기,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돌봄 제공하기에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 및 의사 표현 방식 (11)	위험 (자기/타인/장난감) (DN[S/O/T])	말하는 사람은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표현한다. 다친팔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DN으로 코드화 하지 않는다.
	인공격성(언어/행동) (자기/타인/장난감) (AGV[S/O/T])	부모, 자기, 관리자, 또는 장난감이나 부속품 같은 대상들의 신체적인 해를 야기하는 위협을 말한다.
	긍정대답(YES)	동의 또는 허가를 준다. 행동 및 언어적인 동의의 징후에 부호화한다. [반대에서 동의로 입장을 바꾸었는가? YES-R]
	부정대답(NO)	타인의 행동 제안, 말에 명백히 반대하는 것이다. 아니오는 긍정이 언제든 가능한 곳에서 긍정 대신 왔을 때 부호화 되어야 한다.
	회피(AVD)	행동을 취하는 회피, 정보를 제공하는 회피, 질문에 응답하는 회피, 제안을 무시하는 회피, 타인의 행동 또는 제안, 의견 무시를 말한다.
	안정애착행동(ATT+)	길 잃은 아동 장면에서 아동의 안정 애착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를 찾고, 반갑게 인사하고 안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은 곧 진정되거나 다른 활동을 하며 양자관계를 이어간다.
	불안정애착행동 (ATT-)	아동이 9번 장면에서 회피, 저항 애착을 증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ex. 부모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피해 숨는다, 다시 만나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도망간다, 만난 후 공격적 행동이 따른다, 만난 후 지나치게 들러붙는 행동을 보인다. 등)
목적 과 의도 -	아동의 의존조장 (DEP)	부모가 아동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거나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말을 한다.
	아동의 독립조장 (IND)	아동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강화하는 규제된 말을 한다.
	초점(FOC)	한번 상황을 끝냈는데 초점을 집중하게 하며 다시 과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 또는 초기 시나리오에 나온 과제를 다시 진술해주거나 과제 수행에 적합한 규칙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표 현 방 식 (9)	양육의 제공(N-GIV)	타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돕거나 달래기 위해서, 또는 사과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양육과 보호를 제공한다. 말하는 사람이 말로서 확실히 바란다.
	양육의 요구(N-REQ)	타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돕거나 달래기 위해서, 또는 사과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양육과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말로서 확실히 바란다.
	과제중단(OFF)	시나리오의 출발에서 정해진 과제를 완성하기 전에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제중단으로 코딩한 후에는 초점(FOC)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과제중단으로 다시 코드화 할 수 없다.
	타인의 참여 요구(SPO)	새로운 목표 또는 활동을 구성하고 만드는 것을 이끌어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명백한 요청이다. 대개 "우리" 또는 "~하자"로 시작되며 행동에 타인을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오직 말로 하는 답변만 요청된다면 SPO로 부호화 하지 않는다.
	제한(LIM)	말하는 사람이 제약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막기 위한 제한을 설정한다. 말하는 사람의 목적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 일 것으로 보인다. 제한하기는 항상 명령, 제안, 또는 질문하기와 함께 접수화 된다.
	경쟁(COMP)	말하는 사람이 경쟁과(또는) 도전 상황을 제안한다.
	공상의 비약(ELF)	원래 시나리오에서 매우 빗나간 일반적이지 않은 기발한 의외의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교적 담화(HM)	뚜렷한 명시적인 다른 의미가 없을 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쓰이는 말들을 의미한다.
	연구자와의 상호교류(IWE)	연구자에게 하는 말들을 말한다.
기 타 (7)	자기와의 상호교류(IWS)	말하는 사람의 독백과 상상 속의 다른 존재와 대화를 나누거나 대화의 두 부분을 다 혼자 말하는데 해당되는 경우이다.
	코드화 할 수 없는(NC)	과거 문장의 인용 없이는 너무 모호하여 이해할 수 없는말, 완성되지 않은 생각들, 우물쭈물 댐, 알아들을 수 없는 언급, 예의상의 말에 사용한다.
	놀이(PLAY)	상호작용을 높이로서 생각하며 활동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것이다.
	놀이 않기(N-PLAY)	상호작용을 실제상황처럼 생각하며 활동이나 장난감을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Ⅲ. 연구 결과

1. 어머니와 아동 상호작용 반응 방식의 전반적 특성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설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들은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대체로 어머니는 묻고 아동은 설명하는 질문과 답변 형식의 상호작용 패턴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은 중립적 수단으로 수반되는 내용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묻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고, 주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닐 때도 있으며, 의견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경우도 있는 등 그 의도가 다양하여 다른 상호작용 특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표 6>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아동의 의사전달 방식

분류	하위유형	%	
		어머니	아동
의사 전달 방식 (12)	질문	1320(34.4)	104(8.6)
	명령	282(7.3)	35(2.9)
	제안	406(10.6)	239(19.8)
	설명	855(22.3)	490(40.6)
	타인의 말 되풀이하기	231(6.0)	24(2.0)
	자기의 말 되풀이하기	97(2.5)	23(1.9)
	가르치기	78(2.0)	0(0)
	스스로 대답하기	14(0.4)	3(0.2)
	주도	453(11.8)	271(22.4)
	보상	59(1.5)	3(0.2)
	처벌	34(0.9)	0(0)
	지시한대로 말하게 하기	8(0.2)	7(0.6)
전체 코딩 회수		3837(100)	1208(100)

감정 및 견해표현 방식에서 아동들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 대답'이 가장 많았고 '회피'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이 동의와 긍정에 대해서는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반면, 반대와 부정에 대해서는 대답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02 : 아동의 긍정적 대답과 회피]

M: oo아~

C: 네?

M: oo이 (피규어) 잡아봐

C: (잡으며)이거

M: 응. oo이가 동물원에 왔어. 근데 엄마는 하
마가 보고 싶어.

C: 딱짓.

M: 동물 먼저 보자

C: (다른 곳 보며) 어? 기린~

<표 7>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아동의 감정 및 견해 표현 방식

		(%)	
분류	하위유형	어머니	아동
감정 및 견해 표현 방식 (12)	긍정적 정서	31(4.2)	28(2.1)
	부정적 정서	123(16.8)	48(3.6)
	전체 긍정적인 개인적 견해	91(12.4)	16(1.2)
	자기를 향한 긍정적 견해	8(1.1)	15(1.1)
	타인을 향한 긍정적 견해	81(11.1)	1(0.1)
	장난감을 향한 긍정적 견해	2(0.3)	0(0)
	전체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	186(25.4)	10(0.7)
	자기를 향한 부정적 견해	0(0)	0(0)
	타인을 향한 부정적 견해	181(24.7)	10(0.7)
	장난감을 향한 부정적 견해	5(0.7)	0(0)
	전체 위협	73(10.0)	18(1.3)
	자기를 향한 위협 표현	11(1.5)	15(1.1)
	타인을 향한 위협 표현	59(8.0)	2(0.1)
	장난감을 향한 위협 표현	30(0.4)	1(0.1)
	전체 언어적 공격성	3(0.4)	5(0.4)
	자기를 향한 공격적 언행	0(0)	1(0.1)
	타인을 향한 공격적 언행	3(0.4)	2(0.1)
	장난감을 향한 공격적 언행	0(0)	2(0.1)
	전체 공격적 행동	10(1.4)	70(5.2)
	자기를 향한 공격적 행동	0(0)	23(1.7)
타인을 향한 공격적 행동	9(1.2)	21(1.6)	
장난감을 향한 공격적 행동	1(0.1)	26(1.9)	
긍정대답	147(20.1)	618(46.0)	
부정대답	51(7.0)	142(10.6)	
회피	18(2.5)	371(27.6)	
안정 애착	0(0)	11(0.8)	
불안정 애착	0(0)	8(0.6)	
전체 코딩 회수	733(100)	1344(100)	

어머니의 경우 '아동을 향한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가 가장 많았고, '긍정대답'이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나쁜 점에 대해 비방하거나 탓하고,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 감정 및 견해를 높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는 아동이 부정적 감정과 견해를 표현하고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아동의 회피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01 : 어머니의 아동을 향한 부정적 개인적 견해와 아동의 회피 패턴]

C: 기린 피규어를 머리위로 올림.

M: [격양된 목소리와 찌푸린 인상으로] 머리위로 가면 어떻게 해!

C: 대답 없이 엄마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다시 기린을 머리위에 올림.

M: [아동 손에서 기린을 빼앗아 내려놓으며] 기린은 그런 거 싫어해. 안 그래? ㅇㅇ이는 좋아?

C: 대답 없음.

M: 기린이 ㅇㅇ이 좋대?

C: [한숨 쉬며] 몰라~!

M: 몰라? 왜 모를까 우리 ㅇㅇ이는 만날...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반응방식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제한'과 '타인의 참여 요구'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타인의 참여 요구'와 '양육의 제공'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것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의 행동 및 의견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특성이 높은 반면, 어머니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에 대해서는 아동이 협력하고 협조해 주길 원하는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통제적인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08: 어머니의 제한과 타인의 참여 요구]

M: 위험하니까 내려와. 동생 따라하는 거 알지?

C: 기린 보러 가야지~ 내가 밥 줄게 자 먹어.

M: 주면 안 돼. 사육사들이 밥 못주게 하잖아.

C: 팝콘 줘도 된대.

M: 아냐. 여기 뭐라고 외부인 주지 말라고 되어있지. 우리 기린 보러갈까 호랑이 보러갈까?

C: 기린~

M: 여기 호랑이 보는 길이 더 가깝다. 호랑이 보러가자. 이렇게 돌아서 가자.

<표 8>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아동의 목적과 의도 표현 방식

분류	하위유형	(%)	
		어머니	아동
목적	아동의 의존조장	54(7.0)	0(0)
	아동의 독립조장	38(4.9)	0(0)
과	초점	11(1.4)	0(0)
	양육의 제공	93(12.0)	18(20.5)
의도	양육의 요구	28(3.6)	9(10.2)
	과제중단	1(0.1)	6(6.8)
방식 (9)	타인의 참여 요구	198(25.6)	44(50.0)
	제한	345(44.6)	11(12.5)
	경쟁	5(0.6)	0(0)
전체 코딩 회수		773(100)	88(100)

아동의 경우,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자신의 의견과 욕구에 협력하고 협조해 주길 원하는 반응 특성인 '타인의 참여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았던 반면, 어머니를 지키고 돕거나 달래기 위해 어머니에게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반응이 다음으로 많았는데 사례별로 살펴 보면, 어머니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기보다 돌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아동들은 정서적 돌봄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어머니에게 투사하여 어머니를 돌봄으로써,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관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예시와 같다.

[사례-04 : 아동의 양육의 제공]

M: 혼자 가면 무섭잖아.
 C: 안 무서워
 M: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무섭대
 C: 엄마가 내 뒤 따라와.
 M: ○○이가 엄마 데려 갈 거야?
 C: 응. 난 귀신 다 때려 줄 거야.
 M: 엄마가 ○○이 지켜줘야 하는데 ○○이가
 엄마 지켜줬어?
 C: 엄마 무서울까봐.
 M: 고마워 ○○이는 하나도 안 무서운가봐 그
 치?
 C: 난 귀신동굴도 들어가 본 사람이야.

[사례-01 : 타인의 참여 요구]

M: ○○이 먼저 갈 수 있어?
 C: 응
 M: 엄마 뒤 따라갈게. ○○아 엄마도 데리고
 가.
 C: 뒤로 돌아가 엄마와 나란히 맞춰서 감
 M: 아우○○아 엄마 무서워~ 고릴라도 나타났
 다!
 C: [나무 조각을 던지며] 장애물 던지기!
 M: 쓰러졌어? 와 ○○이 최고네 응? 역시 ○○
 이는 잘하는구내!
 C: [동물들을 퍽퍽 치며] 싹쓸이!!

기타 반응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혼자서 대화의 두 부분을 모두 이야기하며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자기와의 상호교류'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도적이고 다소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은 '코드화 할 수 없는'반응이 가장 높아 모호한 상호작용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아래의 예시와 같다.

[사례-05 : 코드화 할 수 없는 반응]

어우 졸려~

C: 화장실 어디 있어요?

M: 졸려?

M: 화장실? 여기 화장실 할까?

C: 아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브라질 경기 막

C: 남녀. 남녀 어떻게 하지? 팝콘 계속 먹고 있어.

끝나 가는데.

<표 9>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아동의 기타 표현 방식

		(%)	
분류	하위유형	어머니	아동
기타 표현 방식 (7)	공상의 비약	10(4.3)	43(16.2)
	사교적 담화	40(17.0)	27(10.2)
	연구자와의 상호교류	4(1.7)	18(6.8)
	자기와의 상호교류	123(52.3)	11(4.2)
	코드화 할 수 없음	55(23.4)	163(61.5)
	놀이	1(0.4)	3(1.1)
	놀이 않음	2(0.9)	0(0)
	전체 코딩 회수	235(100)	265(100)

2.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특성

1)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특성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의 반응 유형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동의 어머니들은 모두 '질문', '설명', '주도', '제안', '명령'의 순서로 높은 반응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행동문제 유형별로 의미 있는 점수 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0>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의 의사전달 방식

분류	하위유형	(%)	
		외현화	내현화
의사 전달 방식 (12)	질문	729(34.3)	591(34.6)
	명령	148(7.0)	134(7.8)
	제안	231(10.9)	175(10.2)
	설명	465(21.9)	390(22.8)
	타인의 말 되풀이하기	126(5.9)	105(6.1)
	자기의 말 되풀이하기	46(2.2)	51(3.0)
	가르치기	47(2.2)	31(1.8)
	스스로 대답하기	6(0.3)	8(0.5)
	주도	279(13.1)	174(10.2)
	보상	38(1.8)	21(1.2)
	처벌	10(0.5)	24(1.4)
	지시한대로 말하게 하기	3(0.1)	5(0.3)
전체 코딩 회수		2128(100)	1709(100)

<표 11>의 감정 및 견해의 표현방식을 살펴보면, 외현화 아동의 어머니들은 '전체 긍정적 개인적 견해(14.4%)'의 빈도와 '전체 부정적 개인적 견해(19.1%)'의 빈도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긍정적 견해=7.7%, 부정적 견해=32.7%), 외현화 아동 어머니의 '전체 부정적 개인적 견해' 표현의 빈도와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외현화=19.1%, 내현화=32.7%).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타인을 향한 부정적 견해'가 31.5%로 전체 부정적 개인적 견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내현화 아동의 어머니들이 외현화 아동의 어머니들에 비해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나쁜 점에 대해 비방하거나, 탓하고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예시와 같다.

[사례-06 : 내현화 아동 어머니의 타인을 향한

- | | |
|----------------|-------------------------|
| 부정적 견해] | M: 들어가자마자 무서운거 나오면 어떻게? |
| M: 여기 들어갈거야. | C: |
| C: 나도 | M: 못 들어가지? |
| M: 무서울텐데? 울려고? | C: 고개저음 |
| C: 아니. | M: 못 들어가지? |

<표 11>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의 감정 및 견해 표현 방식

분류	하위유형	외현화	
		외현화	내현화
감정 및 견해 표현방식 (12)	긍정적정서	21(5.3)	10(3.0)
	부정적정서	74(18.6)	49(14.6)
	전체 긍정적 개인적 견해	57(14.4)	34(7.7)
	자기를 향한 긍정적 견해	3(0.8)	5(1.5)
	타인을 향한 긍정적 견해	54(13.6)	27(8.0)
	장난감을 향한 긍정적 견해	0(0.0)	2(0.6)
	전체 부정적 개인적 견해	76(19.1)	110(32.7)
	자기를 향한 부정적 견해	0(0.0)	0(0.0)
	타인을 향한 부정적 견해	75(18.9)	106(31.5)
	장난감을 향한 부정적 견해	1(0.0)	4(1.2)
	전체 위협	49(12.3)	24(7.1)
	자기를 향한 위협 표현	7(1.8)	4(1.2)
	타인을 향한 위협 표현	40(10.1)	19(5.7)
	장난감을 향한 위협 표현	2(0.5)	1(0.3)
	전체 언어적 공격성	0(0.0)	3(0.9)
	자기를 향한 공격적 언행	0(0.0)	0(0.0)
	타인을 향한 공격적 언행	0(0.0)	3(0.9)
	장난감을 향한 공격적 언행	0(0.0)	0(0.0)
	긍정대답	88(22.2)	59(17.6)
	부정대답	22(5.5)	29(8.6)
회피	8(2.0)	10(3.0)	
안정애착	-	-	
불안정 애착	-	-	
전체 코딩 회수	397(100)	336(100)	

어머니의 목적 및 의도표현 방식은 <표 12>와 같이 아동 행동문제의 유형과 상관없이 '제한(외현화=43.9%, 내현화=45.7%)'과 '타인의 참여 요구(외현화=27.9%, 내현화=22.2%)'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의 목적 및 의도표현 방식

		(%)	
분류	하위유형	외현화	내현화
목적 및 의도표현 방식	아동의 의존조장	30(6.6)	24(7.6)
	아동의 독립조장	26(5.7)	12(3.8)
	초점	4(0.9)	7(2.2)
	양육의 제공	42(9.2)	51(16.2)
	양육의 요구	22(4.8)	6(1.9)
	과제중단	0(0.0)	1(0.3)
	(9) 타인의 참여 요구	128(27.9)	70(22.2)
	제한	201(43.9)	144(45.7)
	경쟁	5(1.1)	0(0.0)
전체 코딩 회수		458(100)	315(100)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기타 반응의 빈도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에 따르면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자기와의 상호교류' 빈도가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기와의 상호교류란 말하는 사람이 독백과 상상 속의 다른 존재와 대화를 나누거나 대화의 두 부분을 다 혼자 말하는데 해당되는 반응이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행동을 통해 다소 주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01: 외현화 아동 어머니의 자기와의 상호교류]

M: ○○아 얌전히 기다릴 꺼지? 조금만 참아
M: 우리 참으면 어떻게 되지?
C: [알아들을 수 없는 말]
M: 좋은 일이 생기지~!
M: [낮선 사람으로서] 아 우리 ○○이요, 요즘 말도 잘 듣고요, 공부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참는 것도 잘하고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민지엄마, 민지가 우리 ○○이 어떻게 하고 하나요?
M: [친구로서] 어 민지가 그러는데, ○○이 너 무너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한대.

[사례-02 : 외현화 아동 어머니의 자기와의 상호교류]

M: 아이고 성현이 엄마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만히 있어. 엄마 잠깐 이야기좀 할게, 이리와봐. 엄마옆에 있어. 인사해야지
C:[친구에게] 안녕하세요.
M: [친구로서] 어 ○○이 착하네. 쓰다듬어 줘. [친구에게] 성현이는 어떻게 지내요? 방학때? 방학숙제도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 ○○이는 방학숙제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C: [얼굴을 찌푸림]
M: 성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줄까?
C: 끄덕임.

M: [친구에게] 성현이는 어떻게 지내요?

읽고 독후감 쓰고 그래.

M: [친구로서] 성현이는 맨날 책읽어. 맨날 책

<표 13>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의 기타 표현 방식

분류		하위유형	외현화	내현화 (%)
기타 표현 방식 (7)		공상의 비약	8(4.8)	2(3.0)
		사교적 담화	20(11.9)	20(29.9)
		연구자와의 상호교류	4(2.4)	0(0.0)
		자기와의 상호교류	102(60.7)	21(31.3)
		코드화 할 수 없음	33(19.6)	22(32.8)
		놀기	0(0.0)	1(1.5)
		놀지 않음	1(0.6)	1(1.5)
		전체 코딩 회수	168(100)	67(100)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코드화 할 수 없음'(32.8%)과 '사교적 담화' 반응(29.9%)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화 할 수 없음'이란 완성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우물쭈물 대는 말들, 알아들을 수 없는 언급이나 걸치레하는 반응을 의미하며, '사교적 담화'란 뚜렷하게 명시적인 의미가 없는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반응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현화 아동의 어머니는 다소 명료성이 떨어지고 피상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 특성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외현화 아동은 내현화 아동에 비해 '설명'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외현화=48.3%, 내현화=33.8%).

<표 14>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의사전달 방식

		(%)	
분류	하위유형	외현화	내현화
의사 전달 방식 (12)	질문	42(7.2)	62(10.1)
	명령	18(3.1)	17(2.8)
	제안	97(16.6)	142(23.1)
	설명	282(48.3)	208(33.8)
	타인의 말 되풀이하기	14(2.4)	10(1.6)
	자기의 말 되풀이하기	9(1.5)	14(2.3)
	가르치기	0(0.0)	0(0.0)
	스스로 대답하기	2(0.3)	1(0.2)
	주도	115(19.7)	156(25.4)
	보상	3(0.5)	0(0.0)
	처벌	0(0.0)	0(0.0)
	지시한대로 말하게 하기	2(0.3)	5(0.8)
전체 코딩 회수		593(100)	615(100)

이것은 외현화 아동들이 내현화 아동에 비해 자신의 욕구나 의도, 생각 등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에 더 능숙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동을 향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더라도 쉽게 위축되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던 주도적 모습과도 일관된 반응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04: 외현화 아동의 설명]

M: 하마봤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까?
 C: 다음에 호랑이 보러가. 아니 얼룩말 보러가.
 M: 왜 호랑이 보고 싶..
 C: [엄마 말을 막으며] 여기 있잖아.
 M: 그 다음에 얼룩말 보고 난 다음에 뭐 보러

가지?
 C: 호랑이 볼래.
 M: 그래. 호랑이 보러. 호랑이 어디 있어? 들어가. 갈 거야?
 C: 이렇게 가.
 M: 호랑이 두 마리네. 엄마하고 아빠인가?
 C: 아냐.

감정 및 견해 표현의 방식은 아래의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긍정대답(외현화=56.3%, 내현화=35.6%)의 비율이 내현화 아동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내현화 아동들은 회피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외현화

=15.9%, 내현화=39.5%).

<표 15>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감정 및 견해 표현 방식

		(%)	
분류	하위유형	외현화	내현화
	긍정적 정서	20(3.0)	8(1.2)
	부정적 정서	29(4.3)	19(2.8)
	전체 긍정적인 개인적 견해	8(1.2)	8(1.2)
	자기를 향한 긍정적 견해	8(1.2)	7(1.0)
	타인을 향한 긍정적 견해	0(0.0)	1(0.1)
	장난감을 향한 긍정적 견해	0(0.0)	0(0.0)
	전체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	6(0.9)	4(0.6)
	자기를 향한 부정적 견해	0(0.0)	0(0.0)
	타인을 향한 부정적 견해	6(0.9)	4(0.6)
	장난감을 향한 부정적 견해	0(0.0)	0(0.0)
	전체 위협	11(1.6)	7(1.0)
감정 및 견해 표현 방식	자기를 향한 위협 표현	9(1.3)	6(0.9)
	타인을 향한 위협 표현	1(0.1)	1(0.1)
	장난감을 향한 위협 표현	1(0.1)	0(0.0)
(12)	전체 언어적 공격성	5(0.7)	0(0.0)
	자기를 향한 공격적 언행	1(0.1)	0(0.0)
	타인을 향한 공격적 언행	2(0.3)	0(0.0)
	장난감을 향한 공격적 언행	2(0.3)	0(0.0)
	전체 공격적 행동	26(3.9)	44(6.6)
	자기를 향한 공격적 행동	6(0.9)	17(2.5)
	타인을 향한 공격적 행동	7(1.0)	14(2.1)
	장난감을 향한 공격적 행동	13(1.9)	13(1.9)
	긍정대답	380(56.3)	238(35.6)
	부정대답	75(11.1)	67(10.0)
	회피	107(15.9)	264(39.5)
	안정 애착	8(1.2)	3(0.4)
	불안정 애착	1(0.1)	7(1.0)
	전체 코딩 회수	675(100)	669(100)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 04-외현화 아동의 긍정대답]

- M: 동물원 문 닫는데. 문 닫으면 우리 집에 못
가. 다음에 와서 엄마가 시소 태워줄게.
C: 응
M: ○○이 너무 착하다. 다음에 와서 태워줄게.
C: 응.
M: 그래. 근데 평소 모습이 너무 아니다. [중
략..]
C: 이제 집에 왔어.
M: 집에 왔어? 우리 집이야?
C: 텔레비전 보고 있어.
M: 벌써 와서 보고 있어?
C: 씻지도 않고 티비
M: [비꼬듯이] ○○이 씻지도 않고 tv 잘 보지
응?
C: 응
M: 깨끗이 손 씻어야지.
C: 씻었어.

[사례 07- 내현화 아동 회피반응]

- M: ○○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C: 대답 없음.
M: 이제 집에 가야해. 동물원 끝났다고 방송
나왔어.
C: 대답 없이 다른 곳으로 혼자 돌아다님.
M: [쫓아가며] ○○아. 엄마랑 시소는 다음에
타자. 알았지?
C: 고릴라가 있던 나무숲 안으로 숨음.
M: 어디 갔어. ○○아 숨지 말고. ○○이 화났
어?
C: 대답 없음.
M: ○○아 엄마가 시소는 다음에 태워줄게. 이
제 가자. 동물원 끝날 시간이야. 응?
C: 대답 없음.

위와 같이 같은 장면에서 어머니가 비슷한 반응 방식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행동문제에 따라 아동들은 대체로 각기 다른 반응 특성을 보였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유사 상황에서 대부분 '긍정대답'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긍정적이고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적응적이고 긍정성이 항진되어 있어 어머니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한 다기 보다는 다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례 03-외현화 아동의 긍정대답]

M: 잠깐만 ○○아. 엄마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C: 응~
 M: 다른데 가면 ○○이 길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꼭 기다려야해?
 C: 응
 M: 다른데 가면 안 돼. 알았지?
 C: 응
 C: [엄마 피규어가 가자 무서운 동굴위로 올라섬]
 M: 어? 다른데 가면 안 돼! 위험해! 내려와 ○○아!
 C: 응 히히히히히[내려옴]
 M: 위험해.
 C: [어머니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움직임]
 M: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위험해 ○○아.
 C: [동굴을 앞에 놓고] ○○이는 이 안으로 들어 갔어.

M: 안 돼. 여기 있어야지.
 C: [계속 놀이함] ㅎㅎㅎㅎ
 M: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C: [역시 계속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며] 하하하하
 M: 얼른 빨리 오세요! [손으로 집에 끌음]
 C: 으악! 헤이잉~[몸부림 쳐 모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움직임]
 M: 김○○!!
 C: [다른 쪽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잠시 후 모 있는 쪽으로 다시 가면서] 아이 재밌다.
 M: 여기 엄마 친구랑 이야기 좀 할게. 가만히 있어. 알았지?
 C: 응.
 M: 응. 엄마 잠깐 여기 서서 이야기할게.
 C: [엄마 친구 피규어를 집어 들고는 엄마의 친구로서] 그럼 나 갈게~ 안녕~
 C: 갔어.

이처럼 이들 아동의 긍정대답은 실제 이들이 어머니의 의견 및 제한에 대해 내현화 아동들보다 순응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오히려 지나치게 적응적인 경향성이 높아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처럼 어머니의 제한에 쉽게 압도되어 위축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자기정서를 유지하고 의도대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반면, 내현화 아동들은 '회피' 반응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응이 유발되는 원인은 사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부정적 견해나 제한에 의해 위축되고 불안해하면서 점차 회피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였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회피를 유발할 만큼 특별한 반응 특성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소통하지 않고 함몰된 특성이 높은 경우였다.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사고의 비약과 함몰된 정서를 보이며 요구되는 대답과 반응을 보이지 못하여 회피반응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 06-어머니의 부정적 견해와 제한에 의한 회피]

M: 내려와.
 C: 대답없음.
 M: 내려오라고.
 C: 대답없음.
 M:[협박] 한번 나갔다 올래 밖에?
 C:[무서운 듯] 쉬었다 할래.
 M: 쉬었잖아! 높은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돼!! 떨어지니까 내려와!!!
 C: 대답없음.

[사례 07-아동의 함몰된 특성에 의한 회피]

M: 여기 유령의 집이래. 안무섭겠어?
 C: 대답없음.
 M: 응?
 C: 대답없음.
 M: 유령들 나오면 어떻게 하지?
 C: 대답없음.
 M: 유령들 막 나오면 어떻게 하지?
 C: 대답없음.
 M: 엄마 손잡고 갈까?
 C: 고개를 저음.

[사례 05-사고의 비약과 함몰에 의한 회피]

M: 다음에 또 놀러오자.
 C: 나 많이 먹어. 돈까지 집에 한방에 날아가.
 [중략]
 M: 엄마가 연고 발라줄게. 자 이리와.
 C: 엄마! 엄마 쉬 마렵다고 해요.

이처럼 상호작용 내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 특성이 아동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동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이거나 생득적인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반응 특성이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결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아동의 비슷한 반응 양식에 대해서도 어머니 역시 각자가 지닌 반응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며 전혀 다른 상호작용 결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표 16>의 상호작용에서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반응을 살펴보면, '타인의 참여 요구' 반응에서 외현화 아동에 비해 내현화 아동의 반응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외현화=32.6%, 내현화=66.7%]. 이는 내현화 아동이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의존하거나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소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양육의 제공[외현화=30.2%, 내현화=11.1%]'과 '제한[외현화=23.3%, 내현화=2.2%]'의 반응이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여 대체로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자기 욕구를 드러내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호작용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16>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목적 및 의도표현 방식

		(%)	
분류	하위유형	외현화	내현화
	아동의 의존조장	0(0.0)	0(0.0)
	아동의 독립조장	0(0.0)	0(0.0)
	초점	0(0.0)	0(0.0)
목적과 의도 표현 반응(9)	양육의 제공	13(30.2)	5(11.1)
	양육의 요구	4(9.3)	5(11.1)
	과제중단	2(4.7)	4(8.9)
	타인의 참여 요구	14(32.6)	30(66.7)
	제한	10(23.3)	1(2.2)
	경쟁	0(0.0)	0(0.0)
전체 코딩 회수		43(100)	45(100)

<표 17>의 기타 상호작용 방식에서는 외현화 아동은 내현화 아동에 비해 '코드화 할 수 없음' 반응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내현화=66.5%, 내현화=53.1%], 내현화 아동은 외현화 아동에 비해 '공상의 비약[외현화=12.6%, 내현화=22.4%]'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본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기타표현 방식

		(%)	
분류	종류	외현화	내현화
	공상의 비약	21(12.6)	22(22.4)
	사교적 담화	17(10.2)	10(10.2)
기타 표현 방식 (7)	연구자와의 상호교류	7(4.2)	11(11.2)
	자기와의 상호교류	10(6.0)	1(1.0)
	코드화 할 수 없음	111(66.5)	52(53.1)
	놀이	1(0.6)	2(2.0)
	놀이 않기	0(0.0)	0.0
전체 코딩 회수		167(100)	98(1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그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이들의 관계 및 반응 양식이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전체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상호작용 방식으로는 '질문'을, 감정 및 견해의 표현 방식으로는 '타인을 향한 부정적 개인적 견해'를 가장 많이 보였고, 타인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막는 반응인 '제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반응에서도 혼자서 대화의 두 부분을 모두 말하며 상황을 주도하는 '자기와의 상호교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어머니들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비난과 탓을 하거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상호작용 행동이 높고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고자하는 자기중심성도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임상군 아동의 어머니들이 불안, 적대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송현정(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의사를 전달하는 반응으로는 '설명'의 빈도가 가장 높아 어머니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설명'을 하는 질의응답방식의 상호작용 패턴을 자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들은 '긍정대답'과 '회피'의 감정 및 의사표현 방식을 가장 자주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의 목적과 의도로는 '타인의 참여 요구'와 '양육제공'을 위한 경우가 많았고 기타 '코드화할 수 없는'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이 긍정적 감정이나 의사표현은 비교적 능숙하게 하지만, 부정적 감정이나 의사표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질문에 응답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서투르고 모호한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에 비해 '설명', '긍정대답', '양육의 제공', '제한', '코드화 할 수 없음' 반응이 높았고,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회피', '타인의 참여요구', '공상의 비약'반응이 외현화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 아동들은 내현화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지만 주도성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더 높고, 내현화 아동은 외현화 아동에 비해 수동적이고 회피적이며 의존성이 높고 다소 함몰된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현화 아동의 긍정성은 적극성과 우호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제한을

받아들이고 규칙에 따라야 할 때에도 지나치게 적응적으로 상황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려 하는 특성으로 작용할 때는 오히려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적응성이 높을수록 산만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적극적 측면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류현강(2007)의 연구결과와도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기와의 상호교류'가 높았고, 내현화 아동의 어머니는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개인적 견해', '사교적 담화', '코드화 할 수 없음' 반응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다소 주도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과 내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부정적이고 피상적이며 모호한 상호작용 특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외현화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선행 연구 결과와(Anderson, 1994; Campbell, 1973; Winsler, 1998; 이승희, 2003; 정진희, 2007; 정인선, 2006),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현화 행동문제의 하위 특성인 불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송영희, 2006; 이정옥, 2004)에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상호작용 내에서 아동이나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 특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응에 일방적이고 단일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어머니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유발하며 패턴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는 상호작용 내에서의 아동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의 상호 교환적 피드백의 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아동 및 부모의 상호작용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외현화 아동과 부모는 각자의 주도성과 자기중심성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중요하고, 내현화 아동과 부모는 어머니의 부정적정서와 피상적이고 모호한 상호작용 패턴을 인식하는 한편, 아동의 의존·회피적 특성과 함몰된 특성을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상호작용특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각기 다른 인식과 반응방식을 보임으로 인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야기하기도, 또는 증가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기질 특성이나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도 각각 상이한 인식과 반응방식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상호작용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이 인식되고 조율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어줌으로, 상호작용 내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조율되지 못하는 특성을 파악하여 이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부조화를

다루어주는 것이 아동 행동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 임상군 아동을 제외한 연구로 행동문제를 지니지 않은 아동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동일 실험을 비 임상군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객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국내에 처음으로 사용을 시도한 연구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기존 연구와의 결과 비교 및 논의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로서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로 인해 사례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외현화 및 내현화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상호작용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지현 (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2005). *성별·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민지 (2008). *기질의 같고 다름에 따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정일 (2010). *과파적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현강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세민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위축 행동 및 우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남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 연구 : 일반청소년과 잠재적 비행청소년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6). *유아기 부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 그림책 읽기 상황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귀남·전종국 (2003). *정서행동 문제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훈련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7(1), 73-89
- 서수연 (2007).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애 (2009).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특성 및 영아 기질과 영아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희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정 (2008). *어머니의 아동기 모-자녀관계 및 성격특성이 현재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1999).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동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 (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 (2003).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 (2004). *부모의 갈등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1999). *아동의 이야기 꾸미기를 통한 정신적 표상에 관한 연구 :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경·오경자 (2004). *부모-자녀 상호 작용 평가 척도의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3(3), 789-813.
- 장창현 (200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인선 (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 (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창의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1991).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아 (200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모-자 상호작용 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태희 (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 (2008). *서울시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포럼 자료1(1)*. 서울시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 Anderson, C. A., Hinshaw, S. P. & Simmel, C. (1994). Mother-child interactions in ADHD and comparison boys: Relationships with overt and covert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2(2), 247-265.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d Family Interaction During Toddler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477-495.
- Campbell, S. B. (1973)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6(1), 113 - 149.
- Holigrocki, R. J, Kaminski, P. L. & Frieswyk, S. H. (1999). Introduction to the Parent-Child Interaction Assessme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3(3), 413-428.
- Kaminski, P. L., Harshaw, A. & Jones, H. (2004). Low Parental Warmth and Conduct Problems in ADHD Boys. Presented at the 112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uly 28 - August 1, 2004, Honolulu, HI.
- McClowry, S. G., Giangrande, S. K., Tommasini, N. R., Clinton, W., Foreman, N. S., Lynch, K. & Ferketich, S. L. (1994). The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circumstances on the maladjustment of school-age childr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5-35.
- Winsler, A., Diaz, R. M., McCarthy, E. M., Atencio, D. J. & Chabay, L. A. (1998). Mother-Child Interaction, Private Speech, and Task Performance in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J. Child Psychol*, 40(6). 891-904.

Abstract

A case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about the Child’s Behavior Problems

Kye-Soon Kwon* · Young-Yae Park**

This study examines which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 and response methods of children having problematic behaviors and mothers show according to types of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eight children having 63 points of T score in K-CBCL externalizing or internalizing among children who visit counseling institutions and their mothers. Methods of this study is coding and analyzing the records of observation scenes for recorded interaction according to PCITCS.

As a result, mothers whose children having problematic behaviors have high response frequency in the items of ‘questions’ ‘negative personal opinion on others’ ‘restriction’ and ‘cross fertilization with oneself’ And children have high response frequency in the items of ‘explanation’ ‘positive answers’ ‘evasion’ ‘participation requirement of others’ ‘offering of nurture’ and ‘items which cannot be coded.’ Examined by types, children having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ake a lot of response to the items of ‘explanation’ ‘positive answers’ ‘offering of nurture’ and ‘items which cannot be coded.’ And their mothers make a lot of responses in the item of ‘communication with oneself.’ Children having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ave high response in the items of ‘evasion’ ‘participation requirement of others’ and ‘a jump of daydream.’ And mothers have high response frequency in the items of ‘negative personal opinions on others’ ‘sociable conversation’ and ‘items which cannot be coded.’ Characteristics of these interactions can indicate the results integrated, giving and taking feedback each other on individual peculiarity and specialty, which means it will be very useful to examine conflicts between a child and his/her mother in their interactions for dealing with the child’s problematic behaviors as ways which the interactions perceive and mediate the characteristics between both sides.

Key Words :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 Problem

* Hue Clinic

** Department of Child Welfare, Hannam University.